

201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사회계열)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	--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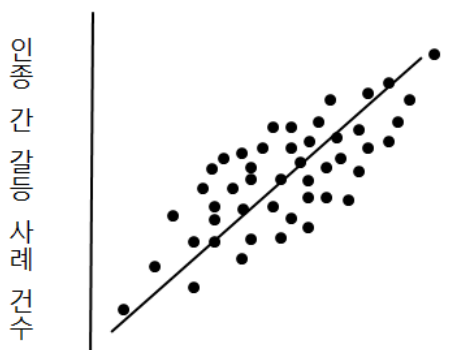
제시문 (가)

다음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실행된 한 연구에 대한 설명이다. 연구자는 피험자들에게 두 화가(클레, 칸딘스키)의 그림을 보여준 후 어느 그림을 더 좋아하는지 묻고 그 결과에 따라 피험자들을 두 집단 X(클레를 좋아하는 집단)와 W(칸딘스키를 좋아하는 집단)로 나누었다. 실험 상황에서 피험자는 실험자가 무작위로 뽑아 제시한 다른 두 명의 피험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배분해야 했다. 이때 실험자는 피험자에게 두 사람 중 한 사람(A)은 X집단에 속해 있고, 다른 사람(B)은 W집단에 속해 있다고 알려주었다. 피험자는 15점의 점수를 A와 B에게 배분해야 했는데, 예를 들어 A와 B는 각각 9점과 6점을 받을 수도 있고 5점과 10점을 받을 수도 있었다. 피험자들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도 없었다. 또한 피험자들은 각자 다른 누군가에게 점수를 더 주거나 덜 주는 일로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다. 실험 결과 피험자들은 대부분 자신과 같은 집단에 소속된 사람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자신과는 다른 집단에 소속된 사람에게 더 낮은 점수를 주었다.

제시문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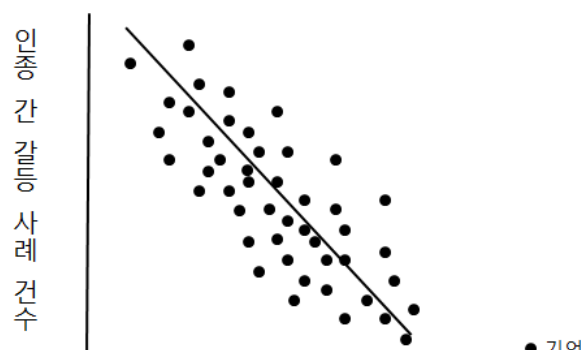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기업에서 다수 인종과 소수 인종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 연구자가 다양한 인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 문화와 조직 내 인종 갈등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이들 기업이 인종적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 또한 이들 기업이 인종적 차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활동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 별도로 측정하였다. 아울러 기업별 인종 간 갈등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5년 간 인종 간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 사례 건수를 보여주는 자료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연구자가 분석한 것은 인종 간 차이를 드러내는 문화와 인종 간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문화가 조직 내 인종 갈등 발생 건수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표의 X축은 기업별 인종 간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활동의 수행 정도와 인종 간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의 수행 정도다. 도표의 Y축은 최근 5년 간 발생한 각 기업별 인종 갈등 관련 사건의 발생 건수다.

[그림1]



인종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활동의 수행 정도

[그림2]



인종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의 수행 정도

제시문 (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에는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 원리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 원리들로 인해 인간은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바라보는 즐거움 이외에는 얻는 것이 없어도 타인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연민이나 동정이 이런 종류의 원리다. 타인의 비참함을 목격하거나 아주 생생하게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 우리가 타인의 슬픔을 목격하고 슬픔을 느끼는 일이 자주 있다는 것은 굳이 예를 들어 입증할 필요조차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도덕적이거나 인간미가 풍부한 사람은 물론, 무도한 악당이나 사회의 법률을 극렬하게 위반하는 사람도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이 느끼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타인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는 없다. 단지 우리 자신이 동일한 상황에 처한다면 무엇을 느낄지 추측해 볼 수는 있다. 내 형제가 고문을 받고 있다고

해도 나 자신이 안락한 상황에 있는 한, 나의 감각은 그 형제가 겪고 있는 고통을 결코 전달해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감각은 우리 자신을 넘어선 적이 없고, 또 넘어설 수도 없다. 오직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타인이 느끼는 감각에 대해 어떤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한 상상력조차 우리가 타인의 입장에 처한다면 우리의 느낌이 어떻게 재현할 뿐이다. 우리 상상력이 묘사하는 것은 타인이 감각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감각한 결과물일 뿐이다.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타인의 처지에 놓아보고, 타인과 똑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인식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몸으로 들어가며 어느 정도는 타인과 같은 사람이 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타인의 감각에 대해 어떤 관념을 형성하고, 그 정도가 미약하더라도 타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어떤 고통을 겪거나 고난에 처하는 일은 매우 큰 슬픔을 불러일으키므로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거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 관념이 생생하거나 희미한 정도에 비례하여 타인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상상을 통해 고통 받는 자와 처지를 바꾸어봄으로써 타인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거나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타인의 비참함에 대해 우리가 동료로서 가지는 감정의 원천이 된다는 점은 여러 분명한 관찰을 통해 입증될 수 있다. 동정이나 연민은 타인의 슬픔에 대해 우리가 동료로서 가지는 감정을 나타내는 반면, 공감은 타인이 느끼는 모든 감정에 대해 우리가 동료로서 가지는 감정을 지칭하는 용어다.

제시문 (라)

프랑스인 노동자 르블롱 씨 부부가 사는 종키 거리 주변에는 알제리 출신의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 르블롱 씨는 자신이 알제리인들을 존중하고 있고 자신 역시 그들로부터 존중받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러나 입술을 만지작거리며 천정을 올려다 보는 르블롱 씨 부인의 말투와 표정에서 우리는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녀는 주로 이웃들과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말했는데, 이 때문에 이웃들과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토로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도 편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여름 휴가철에 그녀의 아파트 안에서 나는 냄새와 소음을 견디다 못해 이사를 간 경험이 있었는데, 이때 신념대로 살지 못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죄의식을 가슴에 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털어 놓기도 했다. 르블롱 씨는 전체 학생 가운데 이민자 자녀인 아동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지역 내 학교의 교사들이 이들 학생을 지원하고 교육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자 자녀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학부모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르블롱 씨가 지켜온 전통과 신념은 이민자와 함께 살면서 겪는 여러 실질적인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매일매일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인터뷰 중 알제리인 동료들에 대해 유보적 판단(“알제리인 동료 중 한 사람은 대단해요. 아랍인치고는 대단한 사람이에요.”)을 드러내고 라마단* 동안 알제리인 동료들이 받은 특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그의 발언이 이와 같은 정황을 짐작케 한다. 사실상 그는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때로는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그의 신념은 프랑스 사회의 교육 전통과 사회 분위기에 의해 형성되고 여러 정치적 참여 활동을 통해 강화된 것이었다.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프랑스인답게 관용의 가치, 아니 더 적절하게 표현한다면 이해의 가치(그는 몇 번이나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라고 말했다.)를 실천하기 위해 르블롱 씨가 노력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아마도 인터뷰 상황이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일 것이다. 하지만 라마단이 그에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말하는 그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맘소사……. 음, 정말 끔찍했죠. 왜냐하면, 음, 나는 끔찍했다고 말할 겁니다. 물론 어른들은 낮에 잡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애들은……. 사내놈들은 길에 나와 놀죠. 그 녀석들은 소리를 질러대지요. 그 녀석들이 투덜대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밤 10시쯤 떠들썩해지기 시작해요. 음 그리고, 그 때부터 진짜 소음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 이슬람력으로 9월 한 달 간 진행되는 성스러운 기간. 이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음식 섭취, 흡연, 음주, 성행위 따위를 금한다.

<문제 1> ‘차이’와 ‘갈등’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의 핵심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라)의 르블롱 씨 부부가 경험하는 내적 갈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주장이 지닌 한계를 서술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